

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 행정자치부	<h1>보도자료</h1>	2016. 3. 29(화)	
		작 성 · 문 의	국무조정실 세종시지원단 팀장 하승완, 사무관 손주연 (Tel. 044-200-2615) 행정자치부 정부청사관리소 과장 한승섭, 사무관 박범선 (Tel. 044-200-1120)
* 엠바고 : 3월 29일 14시 30분(행사종료) 이후 사용 # 공동배포 : 행정자치부(정부청사관리소)			

‘정부세종청사 5개 부처 합동민원실 연다’

- 종합안내실에 5개 부처 합동민원실 및 민원인·공무원 편의시설 새롭게 조성

- 정부는 3월 29일(화) 14시에 정부세종청사 6동 건물 앞에 있는 종합안내실에서 5개 부처(국토교통부, 환경부, 국가보훈처, 국민권익위원회,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) 합동민원실 개소식을 가졌다.
 - 이날 개소식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(이충재), 국무조정실 세종시지원단장(이종성), 행정자치부 정부청사관리소장(유승경) 등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현판 제막, 시설 점검 등으로 간소하게 진행되었다.
- 세종청사는 길게 펼쳐진 구조인데다 부처별로 민원실을 운영하여 민원인들이 각 부처를 찾아가기에 불편이 많았으나, 이번 합동민원실 개소를 통해 이러한 불편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.
 - 합동민원실에는 18개 입주부처 중 특히 민원수요가 많은 국토교통부, 환경부, 국가보훈처, 국민권익위원회,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민원실이 설치되어 주요민원을 빠르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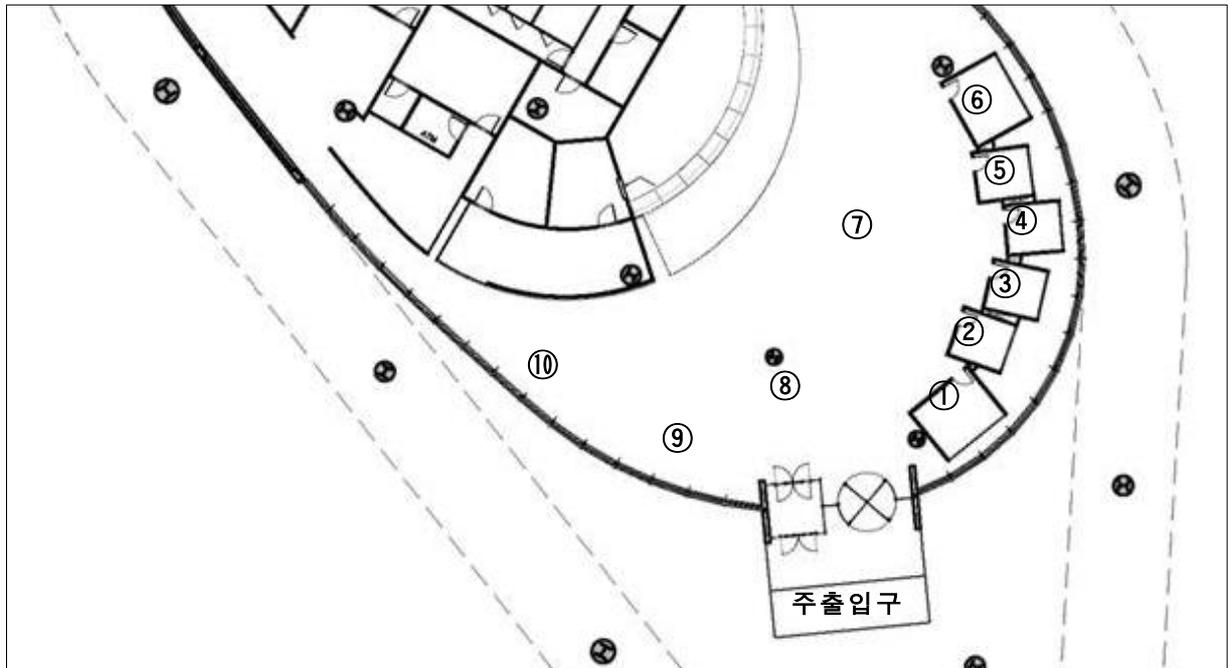
* 5개 부처의 방문객수는 1일 평균 570여명('15.12월 기준)

- 나머지 부처와 관련된 민원의 경우에도 종합안내실 내 안내데스크에서 방문부처 위치와 담당자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.
- 한편, 합동민원실 외에 민원인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'만남의 광장'과 '자치사랑방'도 새롭게 조성하였다.
- 종합안내실 1층 '만남의 광장' 중앙 홀에는 소파·탁자를 비치하여 편안한 휴식공간을 마련하였고, 커피 등 음료를 판매하는 카페테리아와 인터넷 이용이 가능한 PC·노트북 존을 함께 설치하였다.
- 2층 '자치사랑방'에는 PC 및 회의용 탁자 등을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출장 중에도 간단한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.

※ (붙임) 종합안내실 위치도 및 시설별 배치도

참고

종합안내실 위치도 및 시설배치도



종합안내실 1층 평면도

민원실	편의시설
① 국민권익위원회	⑦ 만남의 광장(소파, 테이블)
② 행복청	⑧ 안내데스크
③ 국토부	⑨ 커피숍, 간이매점
④ 공용 상담실	⑩ PC 및 노트북 테이블
⑤ 국가보훈처	※ (2층) 자치사랑방
⑥ 환경부	